

## 《Takashi Murakami: Lineage of Eccentrics》

October 18, 2017 - April 1, 2018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오승희\*

유명 래퍼 카니예 웨스트의 앨범 자켓과 루이 뷔통의 핸드백 패턴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 1962~)의 전시가 보스턴 미술관(전시 기간: 2017.10.18~2018.4.1)에서 열렸다. 순수 예술과 상업 디자인의 경계를 허문 것으로 평가 받는 다카시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와 과거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또 한 번의 파격을 보여주었다. 전시의 제목은 “Takashi Murakami: Lineage of Eccentrics”으로 10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일본의 전근대 작품과 다카시의 작품을 병치하여 구성하였다. 다카시의 영감의 원천이자 오마주로서 전근대 미술이 함께 전시될 수 있었던 까닭은 동경대학교 미술사학과 명예교수이자 기상(奇想)의 계보를 연구한 쓰지 노부오(辻惟雄, 1932~)와 큐레이터 앤 니시무라 모스(Ane Nishimura Morse)가 전시를 기획한 덕분이다. 세 사람이 함께 보스턴 미술관 컬렉션에서 선별한 작품 50여 점은 전통과 현대의 역동적인 대화를 선사했다.



전시는 크게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다카시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수퍼플랫(superflat)” 이 상기되었다. 이미 2000년에 작가가 선언한 “수퍼플랫”은 고급미술과 저급미술의 간극을 좁히는 동시에 현대 일본 소비문화에 대한 성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쓰지 노부오는 이 개념이 아방가르드 회화와 오늘날 일본 만가 및 애니메이션을 연결

\* Ph.D. candidate, Harvard University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과거 일본 회화로 향함을 밝힌 바 있다. 다카시는 본 전시를 위해 소가 쇼하쿠(曾我蕭白, 1730~81)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특별히 제작한 <풍선도병풍(風仙圖屏風)> (2017)과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미스터 디오비(Mr. DOB)>를 쇼하쿠, 이토 자쿠추(伊藤若沖, 1716~1800), 가노 에이노(狩野永納, 1631~97)의 작품들과 병치하여 “슈퍼플랫”의 미술사적 의미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비대신입당회권(吉備大臣入唐繪卷)>(12세기)과 다카시의 습작들이 이루는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면 전시의 2부이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펼쳐졌다. 그의 유명한 아이콘인 해맑게 웃는 꽃들이 깔려리 바닥, 천장의 조명, 그리고 전면에 배치된 금빛 바탕의 거대 캔버스까지 빼곡히 메우며 이전 섹션과는 극적으로 다른 장관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다와라야 소타쓰(倭屋宗達, 1570~1640 경) 파(派)의 <가자도병풍(芥子園屏風)>(17세기)이 어우러져 “가자리(飾り)”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다카시의 꽃들과 소타쓰 공방의 양귀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식성을 넘어 주어진 공간을 초월하는 예술적 의지인 “가자리”를 환상적으로 소화해냈다.

전시는 곧 “아소비(遊び)”를 보여주는 3부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다카시의 가장 유명한 도상인 카이카이와 키키가 놀이를 의미하는 “아소비”를 대표하는 주자로 참여했다. 카이카이키키는 다카시의 브랜드 네임으로 잘 알려졌지만 그가 처음 사용한 용어는 아니다. “기괴하고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뜻을 내포한 “카이카이키키(怪怪奇奇)”는 가노 에이토쿠(狩野永徳, 1543~90)의 작품을 묘사한 표현으로 17세기 문헌에서 이미 쓰이기도 했다. “아소비”를 연출한 보스턴 미술관 소장품으로는 상당수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에도 시대 네쓰케를 비롯하여 히시카와 모로노부(菱川師宣, 1618~94), 가쓰카와 슌쇼(勝川春章, 1726~93), 가와나베 교사이(河鍋曉斎, 1831~89), 그리고 소가 쇼하쿠의 작품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여기에 헤이안 시대 <지옥도(地獄圖)>까지 카이카이키키를 마주하며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를 선보였다.

전시의 후반부는 종교를 주제로 시작되어 고양된 분위기를 잠시 환기시켰다. 4부의 도입부에서 헤이안 시대 석가상, 남북조 시대 <노엽달마도(芦葉達磨圖)>와 <마두관음보살도(馬頭觀音菩薩圖)>가 다카시의 순은 부처 이미지를 둘러쌌다. 이와 함께 하쿠인 에카쿠(白隠慧鶴, 1686~1768)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다카시의 <엔소[円相]>와 플래티넘 도금 배경에 그려진 달마의 초상이 일본 불교미술에 동시대적 미감을 부여하였다.

공(空)의 상징 <엔소>를 지나면 거대하고 붉은 용이 18미터에 달하는 벽을 채우며 전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었다. 다카시가 쇼하쿠의 <운룡도(雲龍圖)>(1763)로부터 영감을 받아 무려 24시간 만에 완성한 대작이다. 일찍이 니혼가(日本画) 아티스트로 훈련을 받았던 다카시는 화가로써 자신의 테크닉을 과감 없이 보여주었다. “네 자신을 한번 그려보지 않겠나” 라는 쓰지 노부오

의 제안에 응답한 이 작품은 다카시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카시의 맹렬한 용은 10미터 길이의 후스마[襖]에 깊은 초묵으로 그려진 쇼하쿠의 용으로 갤러리 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며 전시를 절정에 이르게 했다.

보스턴 미술관의 이번 특별전은 단순히 과거와 동시대의 작품들을 나열한 자리가 아니라 작가의 작업을 일본미술사와 동일선 상에 놓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그 과정에서 작가, 미술사 학자, 큐레이터는 각자의 역할을 전시 전반에 걸쳐 드러낼 수 있었으며 관객은 작가의 최전선 작품들과 미술관의 일본미술 컬렉션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었다. 무라카미 다카시가 그의 독특한 목소리로 일본미술의 역동성과 연속성을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해나갈 것인지 기대된다.